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ES,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Child-rearing Behavior and Child's Peer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 사 송 신 영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 협동과정
교 수 박 성 연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Shin Yeong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Seong Yeon Park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s of SES,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child-rearing behavior and child's peer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A total of 237 children enrolled in the 5th and 6th grade and their mothers were used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completed by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path analysis of antecedent variables influencing child's school adjustment revealed two different patterns. Firstly, socioeconomic status influenced child's school adjustment through maternal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ly, maternal psychological well-being affected by socioeconomic status contributed to child's school adjustment through positive child-rearing behavior and positive peer relationship. Focusing on maternal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the implication for promoting child's school adjustment are discussed.

Corresponding Author : Shin Yeong Song,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712-7587 Fax: +82-2-730-3317 E-mail: anes1020@hanmail.net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주제어(Key Words) : 사회경제적 지위(SES),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양육행동(child-rearing behavior), 친구관계(peer relationship)

Ⅰ. 서 론

아동은 성장해감에 따라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아동의 발달에서 학교생활의 영향력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되며,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학교적응(안영복, 1985)은 학령기 아동의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된다. 더욱이 아동의 학교적응은 대인관계에 대한 내적작업 모형형성에 영향을 미쳐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고, 성인기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성민선, 이상오, 정무성, 정은, 1998), 생애발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관심과 이것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함의를 갖는 연구는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을 돕는 효과적인 중재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자존감, 양육행동과 같은 부모 특성과 아동의 기질을 포함한 성격, 자아존중감, 학업성적, 친구관계와 같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발달적인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나 매개(mediating) 또는 중재(moderating)효과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Luster & Okagaki, 1993), 양육행동의 예측변인으로서 부모의 개인적 인성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던 과거에 비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양육행동에 선행되는 다양한 예측변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또 양육행동은 이러한 변인들과 관련하여 아동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흐름에 부합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의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이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결정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Leyendecker, Harwood, Comparini, & Yalcinkaya, 2005).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적 또는 물리적 자원 및 교육의 기회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가정불화나 부모의 정신병리, 가족 구성원의 약물 사용과 같이 아동의 발달에 부적합한 환경에 처해질 확률이 높아진다(Botvin, 2000; Jenkins, 1996; Jessor, 1991).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부적합한 환경은 성격적 특성이나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아동으로 하여금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정서 및 행동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한다(Swadi, 1999; Wills, Vaccaro, & McNamara, 1994).

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선경과 이재연(1998)은 초등학교 4 – 6학년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족변인과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바 있다(이선경, 이재연, 1998).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을 잃었거나 심각한 수입 감소를 경험한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아동을 배려하지 않고, 심한 처벌이나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박민선, 박성연, 1999; Elder, Nguyen, & Caspi, 1985).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은 생계유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그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참을성과 집중을 요하는 합리적인 지도나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에 비해 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입이나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복지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중년기 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들(박경숙, 1993; 신기영, 옥선화, 1997)에서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낮은 교육수준의 여성에 비해 중년기 위기감과 우울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남정자, 조맹제, 최은진, 1996; Umberson, 1989).

한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나 양육행동과 같은 어머니 특성은 아동의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중요성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만큼 아동의 학교적응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머니는 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상호작용의 대상이며, 아동은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므로, 어머니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어머니의 성격이나 정서 상태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요구 성향이나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어 아동의 학교적응과 일반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untsinger, Jose, & Larson, 1998). 특히 본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아동의 적응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어머니의 우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2 ~ 5배 많은 행동문제를 나타내며(Cumming & Davies, 1994), 학습문제, 행동문제 및 정신과적 문제에 처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Coyne, Burchill, & Stiles, 1991).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우울한 어머니의 학령기 자녀들은 일반 통제집단에 비해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부모의 평가는 물론 아동 자신이 평가한 경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일반집단에 비해 사회적 기술 및 유능성이 상당히 부족하였고,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Billings & Moos, 1983).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가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낼 빈도가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결과에서 일관되게 보고됨에 따라 이 두 변인을 연결 짓는 기제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아동이 어머니의 우울에 노출되기만 해도 유해한 영향을 받는다는 경로이며,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우울이 부모 - 자녀 체계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경로이다. 즉, 우울한 어머니는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가정 내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겪는 등(Cumming *et al.*, 1994) 가정 내 분위기를 손상시켜 아동의 적응을 방해한다. 또 다른 경로는 어머니의 우울이 부모 - 자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 - 자녀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으로는 부모 - 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의 훈육방식과 양육행동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동의 적응과 관련하여 연구된 부모 - 자녀 관계의 지표 변인은 주로 부모의 훈육방식과 양육행동이었다. 많은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그들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이나 우울증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가 높을수록 적절치 못한 양육행동을 보이며(Belsky & Vondra, 1993; Bettes, 1988),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Field, *et al.*, 1985). 반면 생활만족도와 같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부관계나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은 어머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로 자녀양육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전현진, 1997), 배우자간에 적대심이 높으면 학동기와 청소년 시기의 아동에게 더 빈번히 체벌을 사용하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훈육방법을 사용한다(Belsky, 1984). 또한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거부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취하며, 결혼만족도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노명희, 이숙, 1991)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연, 199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역시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 - 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기 유능감 지각 등 제 측면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Baumrind, 1978; Becker, 1964; Harter, 1988). 부모와의 초기경험은 아동의 성격발달, 대인관계, 적응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 정서발달, 인격형성, 사회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이다(Bronfenbrenner & Mahoney, 1975). 예를 들어, 유윤희(1994)와 Chartrand(1992)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아동의 학교적응이 양호하다고 하였다. 또한 Bornstein과 동료들의 연구(Bornstein, *et al.*, 1996)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5학년 시기의 긍정적인 학업적, 사회적,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긍정적 양상은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더욱 증가한다. 반면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관련되어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 비행과 같은 부적응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최규련, 1996; 최진혜, 1999).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또래관리 방식은 또래 적응에 관련되며(Ladd & Hart, 1992),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아동을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Garmezy, Mastem, & Tellegen, 1984).

한편, 아동의 생활영역이 가정에서 학교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대인관계 역시 가정에서의 부모 - 자녀 관계에서 교사와의 관계나 친구관계와 같은 보다 다양한 관계로 확대되어 간다. 특히 아동의 친구관계는 학령기를 즈음해서 그 영향력

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 시기에 겪은 또래관계의 질은 성인기 이후의 이성관계, 부부관계, 대인관계의 기초를 이룬다. 또한 일반적으로 또래집단의 규준은 가족 및 지역사회의 규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또래집단은 아동기 사회화의 주요한 대행자로 간주되어, 친구와 또래는 아동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서로 이야기해주며, 또래집단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아동은 배척함으로써 아동이 문화적 규준과 가치를 습득하게 한다. 결국 아동은 친구관계를 통해 사회화되고 학교를 비롯한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므로, 또래에게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아동의 경우는 부적응의 위험이 높은 한편, 친밀한 친구관계나 높은 수준의 또래의 지지는 아동의 부적응의 위험을 낮추고 문제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Newcomb & Bagwell, 1995; Parker & Asher, 1993). 특히 친한 친구와의 관계는 아동의 적응을 도우며(Vandell & Hembree, 1994),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돕는다(Berndt, 1996). 이와 같이 친한 친구, 지지적인 친구관계가 초기 학교적응 및 성인기 적응을 예언하는 등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agwell, Newcomb, Bukowski, 1998;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는 점에서 볼 때, 단순한 또래지위 보다는 친밀한 친구의 수 및 지지정도가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보다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에 관한 대부분의 국내연구에서는 또래인기도나 또래지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친구관계의 질이나 지지가 아동의 행동이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다.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와 또래의 중요성은 학자들 간에 그 비중을 달리해 왔다. 대표적으로 Harris(1995, 1998)는 집단사회화이론(group socialization theory)을 통해 (a) 부모의 행동은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b) 또래집단이 아동의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환경이다, (c) 양자간 상호관계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합하며, 일반화할 수 없다는 세 가지 근거로,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Vandell(2000)은 Harris가 내세운 주장을 최근의 연구결과와 논리적 근거로 반박하였다. 즉 (a')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유전적 기질과 환경적 특성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 또래 집단 역시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영향력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결정되며 또래 집단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의 하나이며, (c')어린 시절 부모와 가졌던 애착관계가 성장함에 따라 갖게 되는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종단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발달에 미치는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확고히 했다. 즉,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또래의 영향이 커지지만 여전히 가장 큰 요인은 부모로 보고 있다.

Vandell(2000)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정은 성공적인 정체감을 획득하고 성인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사회적인 장소로서, 학교생활의 적응은 이러한 가정의 영향에 기초한다. 심각한 가정불화, 자녀에 대한 무관심 혹은 과도한 기대, 부적절한 양육행동 같은 상황은 아동의 발달을 위협하여 가정의 실패는 곧 학교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류경희, 2003). 뿐만 아니라 아동의 친구관계는 아동이 태어나고 성장해온 가정이라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후부터 지속되어 온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실제로 어린 시절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형성된 초기 애착 유형이 아동이 경험하는 친구관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Elicker, Englund, & Sroufe, 1992), 이후 긍정적이고 애정 어린 부모 – 자녀 관계는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와 관련된다는 연구결과(Park & Hazan, 1990)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탐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에 의하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 변인들은 상호관련되어 복합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되어온 연구들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특성이나 아동의 특성 등 각각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부터 부모와 아동의 사회적 관계 및 학교적응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종합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은 초등학교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이 시기의 적응수준과 질이 대인관계에 대한 내적 작업 모형을 형성하는 등 성인기의 적응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변인이 됨(정현희, 2003)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다(이정윤, 이경아, 2004).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부터 아동의 학교적응에 이르는 이론적 경로모형을 설정하고(<그림 1> 참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고 그 발달적인 경로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고 중재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

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가설

가설 1.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애정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지시/통제,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친구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애정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지시/통제,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아동의 친구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친구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지시/통제적,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은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지시/통제적,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은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아동의 친구관계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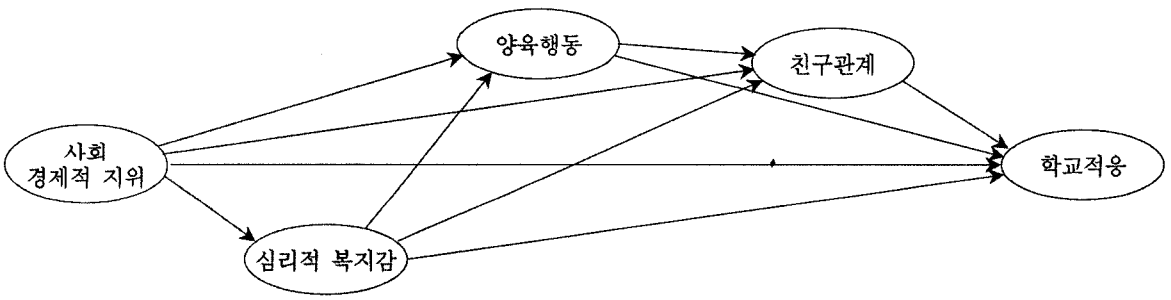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 237명과 그 아동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대전시 서구 K 초등학교에서 표집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듯이 남아가 111명(46.8%), 여아가 126명(53.2%)으로 여아가 다소 많은 편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5학년이 116명(48.9%), 6학년이 121명(51.1%)이었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약 45%가 40 ~ 44세(평균: 42.0세)에, 그리고 어머니의 54%가 35 ~ 39세(평균: 39.2세)에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위변인으로 사용될 가정의 수입과 부모의 학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정의 총 수입은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38.8%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이 25.4%,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이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8.1%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고 고등학교 졸업이 39.7%, 대학원 이상이 10.5%의 순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 53.2%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40.9%, 대학원 이상이 3%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아동의 가정의 일반적인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용 질문지를, 그리고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아동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본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총수입을 근거로 평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숙(1988)의 방법에 따라 부모의 교육수준을 점수화(1점=무학, 2점 = 초졸, 3점 = 중졸, 4점 = 고졸, 5점 = 대졸, 6점 =



〈그림 1〉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이론적 모형

〈표 1〉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N = 237)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성별		가정의 월 소득	
남	111(46.8)	100 ~ 200만원 미만	5(2.1)
여	126(53.2)	200 ~ 300만원 미만	45(19.0)
		300 ~ 400만원 미만	92(38.8)
아동의 학년		400 ~ 500만원 미만	60(25.4)
5	116(48.9)	500 ~ 600만원 미만	29(12.2)
6	121(51.1)	600만원 이상	6(2.5)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30 ~ 34세	2(0.8)	30 ~ 34세	8(3.4)
35 ~ 39세	49(20.7)	35 ~ 39세	127(53.6)
40 ~ 44세	122(44.7)	40 ~ 44세	77(32.5)
45 ~ 49세	47(19.8)	45 ~ 49세	11(4.6)
50 ~ 54세	4(1.7)	50 ~ 54세	2(0.8)
무응답	13(5.5)	무응답	12(5.1)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무학	1(0.4)	무학	1(0.4)
초졸	0(0)	초졸	0(0)
중졸	3(1.3)	중졸	6(2.5)
고졸	94(39.7)	고졸	126(53.2)
대졸	114(48.1)	대졸	97(40.9)
대학원 이상	25(10.5)	대학원 이상	7(3.0)

대학원 이상)하고, 수입 역시 점수화(1점 = 100 ~ 200만원, 2점 = 200 ~ 300만원, 3점 = 300 ~ 400만원, 4점 = 400 ~ 500만원, 5점 = 500 ~ 600만원, 6점 = 600만원 이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를 구성하는 세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 교육수준(r = .74, p < .001), 아버지 교육수준(r = .78, p < .001), 수입(r = .85, p < .001)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경제적 지표의 타당도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수입이 많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질문지는 김혜신(2003)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혜신(2003)의 척도는 생활만족도와 우울로 구성되었는데, 생활만족도는 Olson과 Barnes(1982)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김오남(1998), 이선미(2001)의 연구를 참고로, 우울은 Radloff(1977)의 우울척도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 - D)를 수정 ·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가.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의 척도는 일상생활만족, 결혼생활만족, 자녀와의 관계, 경제상태 만족, 여가만족, 현재 나의 위치와 역할만족, 친 · 인척 관계만족 등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직장생활에 관한 질문은 전업주부도 응답할 수 있도록 가정일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척도의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 우울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CES - D 척도는 심리적 우울감에 대한 측정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전반에 나타나는 우울과 관련된 10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척도의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이 깊다고 밝혀진 합리적인 지도, 애정, 지시/통제, 거부/적대의 4가지 범주의 양육행동을 선정하고, 박성연과 이숙(1990), 이미정(1998) 연구에 기초하여, 31개 문항으로 구성한 후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각 요인은 포함된 문항내용에 준해 요인 Ⅰ은 애정적 양육행동, 요인 Ⅱ는 지시/통제적 양육행동, 요인 Ⅲ은 합리적 지도행동, 요인 Ⅳ는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으로 명명되었다. 또한 이 네 요인은 전체 변량의 53.34%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표 2〉 변인별 도구의 문항수, 가능한 점수범위와 신뢰도

보고자	이론변인	측정변인	문항수	가능한 점수범위	신뢰도 (Cronbach's α)
어머니	심리적 복지감	생활만족도	10	10 ~ 40	.86
		우울	10	10 ~ 40	.87
	양육행동	합리적 지도	8	8 ~ 40	.87
		애정	9	9 ~ 45	.88
		지시/통제	11	11 ~ 55	.86
		거부/적대	3	3 ~ 15	.74
아동	친구관계	친한 친구수	1	-	-
		친구의 지지	7	7 ~ 35	.89
	학교적응	교사에 대한 적응	5	5 ~ 25	.88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	5	5 ~ 25	.73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5	5 ~ 25	.74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	5	5 ~ 25	.82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양육행동의 특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아동의 친구관계

아동의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친한 친구의 수를 묻는 1개 문항과 함께, 친구관계의 질을 묻기 위해 Dubow와 Ulman(1989)의 사회적 지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 중 친구에 관한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7점에서 3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친구관계의 질에 관한 문항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의 지지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친구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해석된다.

5)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민병수(1991)가 개발한 학교적응척도 5개 영역 중 교우에 관한 적응 영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척도는 교사에 대한 적응,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로 5문항씩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20점에서 10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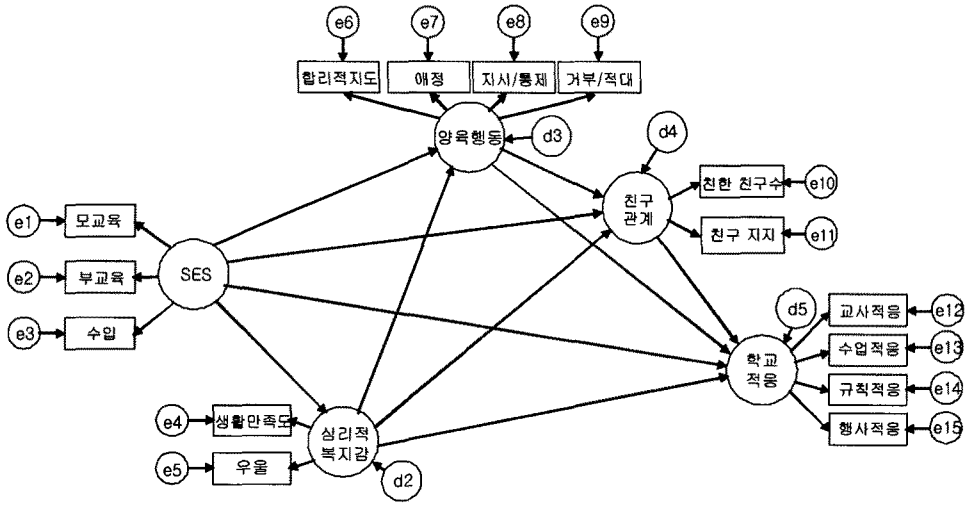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별 측정도구의 문항수, 가능한 점수범위와 신뢰도(Cronbach's α)는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3. 자료수집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6년 10월 중에 실시하였다. 대전시 서구의 K 초등학교의 5, 6학년 중 임의로 10반을 선정하여 각 반의 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시의 주의점을 주지시켰다.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에게 배부한 아동용 질문지는 교실에서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으며, 어머니용 질문지는 추후 회수하였다. 배부된 총 337부의 설문지 중에 319부가 회수되어 94.7%의 회수율을 보였고, 이 중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없는 결손가정 5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77부를 제외하고 총 237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2.0 프로그램과 AMOS 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문항간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사용하였다. 전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관련 변인들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5.0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였으며,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설정한 이론적 모형은 앞에서 제시한 〈그림 1〉과 같다. 이론적 모형에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총 5개의 이론변인이 있다. 이론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인으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총수입,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생활만족도와 우울, 양육행동은 합리적 지도와 애정적, 지시/통제적,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의 친구관계는 친한 친구의 수와 친구의 지지로, 학교적응은 교사, 수업, 규칙, 행사에 대한 아동의 적응으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측정변인과 이론변인간의 가능한 경로를 설정한 측정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주. e1 ~ e15, d1 ~ d5: 오차항.

〈그림 2〉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측정모형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 부분에서는 우선 변인들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후,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로 한다.

1.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

각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표 3〉 참조)를 살펴보면, 측정변인들간의 유의한 상관은 −.13 ~ .61의 범위를 보였다. 즉, 전반적으로 변인들간의 상관계수가 높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측정변인인 합리적 지도와 애정적 양육행동(r = .68)의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행동의 모든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계수(r = −.13 ~ .33), 그리고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모든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계수(r = .16 ~ .34)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의 지지와 학교적응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표 3〉 측정 변인들간의 평균 및 상관관계

(N = 23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아동의 성																
2. 모교육	−.04															
3. 부교육	−.04	.52***														
4. 총수입	.02	.41***	.45***													
5. 생활만족도	−.08	.15*	.15*	.20**												
6. 우울	.05	−.16*	−.09	−.21**	−.54***											
7. 합리적지도	−.06	.09	.12	.16*	.25***	−.26***										
8. 애정	−.05	.13*	.12	.12	.33**	−.25***	.68***									
9. 지시/통제	.03	−.10	−.03	−.02	−.13*	.19**	.03	−.21**								
10. 거부/적대	.04	−.15*	−.06	−.08	−.20**	.23***	−.30***	−.35***	.42***							
11. 친한 친구수	−.12	−.10	−.00	−.08	.00	−.02	.05	.07	.02	−.01						
12. 친구 지지	.07	−.07	−.03	.05	.00	−.00	.17*	.13*	−.05	−.03	.22**					
13. 교사적응	.10	−.05	.03	.07	.06	.01	.21**	.11	.03	.01	.22**	.25***				
14. 수업적응	.01	−.00	.11	.19**	.18**	−.13	.10	.04	−.05	.02	.17*	.34***	.44***			
15. 규칙적응	.09	.02	.16*	.10	.14*	−.11	.13	.10	−.07	−.06	.19**	.24***	.47***	.53***		
16. 행사적응	.11	.01	.03	.06	.16*	−.18**	.11	.02	−.02	.03	.16*	.36***	.44***	.56***	.61***	
평균	−	4.43	4.80	3.22	2.81	2.30	3.64	3.44	2.82	1.68	15.05	3.97	3.64	3.36	3.69	3.51
표준편차	−	0.65	0.65	1.25	0.43	0.51	0.70	0.72	0.64	0.66	12.21	0.75	0.89	0.70	0.71	0.72
점수범위	−	1 ~ 6	1 ~ 6	1 ~ 6	1 ~ 4	1 ~ 4	1 ~ 5	1 ~ 5	1 ~ 5	1 ~ 5	−	1 ~ 5	1 ~ 5	1 ~ 5	1 ~ 5	1 ~ 5

*p < .05. **p < .01. ***p < .001.

〈표 4〉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χ^2	df	χ^2/df	GFI	AGFI	TLI	CFI	RMSEA
가설모형	115.76**	79	1.47	.94	.91	.94	.96	.04

있다. 이는 어머니의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아동에게 지시하거나 거부하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애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경우는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적응의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친구의 수는 학교적응을 비롯한 모든 변인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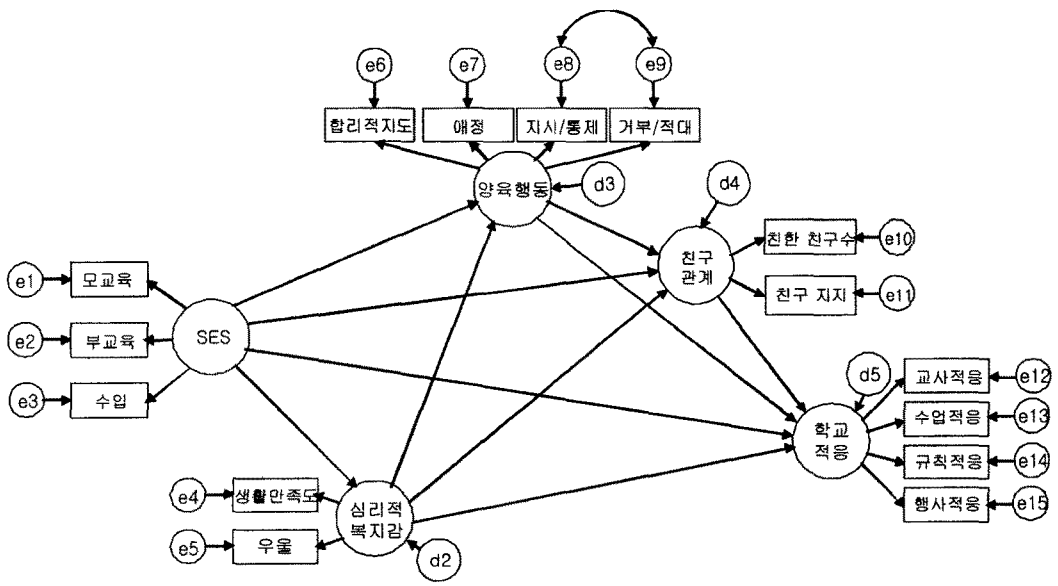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이 주어진 경험자료와 잘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계수 산출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이론적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측정변인인 지시/통제의 오차변량 e8과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의 오차변량 e9간의 공분산에 대한 수정지수값(modification indices)이 보수적인 수준으로 권하는 10(Fassinger, 1987에서 재인용)을 훨씬 초과하였다. 이는 지시/통제적 양육행동으로 측정하지 못한 오차와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으로 측정하지 못한 오차 변량간에 서로 상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론에 근거하여 모형의 수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시된 각 오차변량 간에는 충분히 공분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e8과 e9간에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되는 공분산 경로를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수정모형은 〈그림 3〉과 같으며, 이를 토대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3. 이론적 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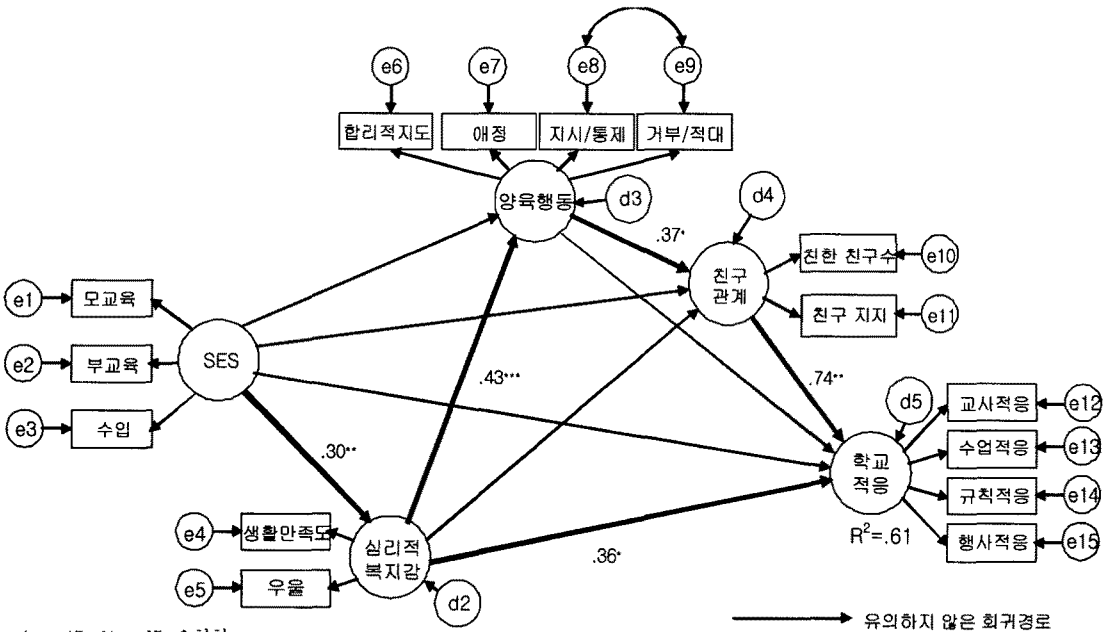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론모형(〈그림 3〉)을 분석하였다. 〈그림 4〉에는 이론변인들간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이론적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4〉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 관계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 관계와 학



주. e1 ~ e15, d1 ~ d5: 오차항.
주. : 공분산경로.

〈그림 3〉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수정모형



주. e1 ~ e15, d1 ~ d5: 오차항.
주. 공분산경로.
*p < .05. **p < .01. ***p < .001.

〈그림 4〉 이론적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정적인 직접 효과(β = .30,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은 지지되었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 3, 4는 기각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β = .43, p < .001)과 아동의 학교적응(β = .36, p < .05)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을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애정적으로 대하는 반면, 지시/통제적,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을 덜하는 동시에, 아동은 학교에서 적응을 잘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5, 6, 7은 지지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구 관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친구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β = .37, p < .05)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아동을 지시하고 통제하거나 거부/적대적으로 대하기보다 합리적, 애정적으로 대할 때 아동의 친구관계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8은 지지되는 반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9는 기각된다.

다음으로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의 친구관계는 학교적응에 정적인 직접효과(β = .74,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친한 친구 수가 많고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의 친구관계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0은 지지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아동의 학교적응에 이르는 직 · 간접적 경로는 두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나타났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높으며, 이에 따라 아동은 학교에서 교사, 수업, 규칙, 행사에 있어서 적응을 잘한다.

둘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행동을 거쳐 아동의 친구관계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

향을 주는 경로가 나타났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어머니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 이것이 다시 아동의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아동은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로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61% 설명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 변인과 아동의 친구관계를 통해 아동의 학교 적응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어머니 변인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양육행동을 선정하였으며 아동의 친구관계를 포함한 제 변인들이 아동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SEM을 통해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경로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발달 영역 전반에 걸친 부적응 간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한 선행연구들(Billings *et al.*, 1983; Coyne *et al.*, 1991)의 결과를 지지하며, 아동의 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의 직접 효과에 대해 밝힌 정미경과 김영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우울한 어머니는 부정적 인지적 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내 상호작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기 쉬우며 가정 내 분위기를 악화시킨다(정미경, 김영희, 2003). 따라서 악화된 가정 내 분위기는 아동의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서조절을 어렵게 함으로써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생활양식과 기술을 아동이 모델링한다는 Bandura(1977)의 이론에 근거해보면, 아동이 우울한 어머니의 생활태도 및 문제해결 방식을 습득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둘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어머니는 아동을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애정적으로 대하는 반면, 지시/통제적이거나 거부/적대적인 양육행동은 덜 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특성의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게 되어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진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양육행동을 거쳐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의 결과는 Dishion(1990)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Dishion(1990)은 아동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거부아로 분류된 아동 중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낮은 또래지위나 공격적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결핍과 빈곤이 가족 내의 일반적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이 때 부모가 빈곤이라는 압박에 잘 대처하여 아동을 비강압적인 방식으로 다룰 때에는 아동이 또래들에서 거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지적인 친구관계가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Bagwell 외(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행동을 거쳐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보다는 친구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아동의 적응을 돕는다는 선행연구(김정윤, 2000; 황경미, 1998; Bagwell *et al.*, 1998; Vandell *et al.*, 1994)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동시에 본 연구 결과는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친구집단의 규준은 일반적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의 규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친구집단은 아동기 사회화의 주요한 대행자로 간주된다. 사회화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칙, 기준 및 가치를 습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박성연, 도현심, 1999)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만한 친구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아동이 사회화를 통해 학교생활 및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아동에게 있어 가족관계, 특히 부모 – 자녀관계와 친구관계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 – 자녀관계와 친구관계의 두 체계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밝힌 선행 연구결과들(Ladd *et al.*, 1992; Parke & Ladd, 1992)을 뒷받침한다. 이

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형성된 초기 애착 유형이 아동이 경험하는 친구관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Elicker *et al.*, 1992). 그러나 초기 애착역사만이 후기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는 결론지을 수 없다. 예를 들어 Park과 Hazan(1990)은 긍정적이고 애정어린 부모 – 자녀 관계는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양육행동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현재의 양육행동 또한 친구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친구관계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결정되며, 어린 시절 부모와 가졌던 관계가 성장함에 따라 갖게 되는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Vandell(2000)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경로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수입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지각한 아동이 부적응, 행동 및 정서문제와 관련된다(Tiet, *et al.*, 2001)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예상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는 우선 아동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가 부모가 보고한 가정의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일부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인 지각이 이들의 사회정서적 기능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매개한다는 McLoyd 외의 연구결과(McLoyd, Jayaratne, Ceballo, & Borquez, 1994)로도 뒷받침 된다. 즉 아동은 가정의 실제적인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사회적 지표로 가족의 빈곤을 지각하여 우울해지거나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에 비해 아동은 사회계층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므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고 보고한 어머니가 한명도 나타나지 않아 전국 도시가구의 하위 20%(1분위)의 월 소득이 80만 6천원이라는 통계청(2006)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과 같은 수입에 따른 영향력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도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인이며, 이러한 변인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그로 인한 아동의 친구관계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리적 복지감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아동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선행변인임을 입증한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한 생태학적 환경에 대한 실질적, 정책적인 함의를 갖는다. 즉, 앞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행 시 양육행동에 대한 지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국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아동의 친구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에서의 또래관계가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비록 열악한 가정환경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는 아동이 원만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친밀한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친구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직접적 영향력을 밝힌 본 연구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가정의 영향력이 미약해지고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이 커진다 하더라도 부모의 잠재적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아동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동의 학교적응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어머니 변인 뿐 아니라 아동의 친구관계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우선, 본 연구는 변인들간의 일방적 관계만을 검증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여러 연구들이 제시한 결과들을 통합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는데도 관련 변인들간의 일방적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은 양방적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이를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여 양방적 영향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모든 변인의 측정치를 수집했다. 그러므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를 통해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관찰과 면접 등의 다른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본 이론적 모형을 반복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정윤(2000).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학교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혜신(2003).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남정자, 조맹제, 최은진(1996). **한국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명희, 이숙(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206.

류경희(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147-168.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경숙(1993).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결혼유형의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민선, 박성연(1999). 경제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아동학회지, 20**(2), 57-74.

박성연(199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능력발달과의 관계. **이화여대한국문화연구원논총, 61**(2), 305-329.

박성연, 도현심(1999). **아동발달**. 서울: 동문사.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성민선, 이상오, 정무성, 정은(1998).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모델연구. **학교사회사업, 창간호.**

신기영, 옥선화(1997).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11-128.

안영복(1985).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윤희(1994). 학교적응 · 불안 ·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미정(1998). 3세 여아의 행동억제와 그 관련변인-영아기 정서성, 부모의 내향성,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선경, 이재연(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이선미(2001).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정윤, 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전현진(1997).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미경, 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정현희(2003). 어머니 양육행동의 관련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6), 75-90.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34**(1), 147-160.

최진혜(1999). 청소년의 부모상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통계청(2006).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미간행자료.

황경미(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aumrind, D.(197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and Society, 9*(3), 239-276.

Becker, G. S.(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74-175.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hild Development, 55*, 83-96.

Belsky, J., & Vondra, J.(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227-25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erndt, T. J.(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346-3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ttes, B. A.(198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ese: Temporal and intonational features. *Child Development, 59*, 1089-1096.

Billings, A. G., & Moos, R. H.(1983). Psychosocial processes of recovery among alcoholics and their families: Implications for clinicians and program evaluators. *Addictive Behaviours, 8*, 205-218.

Bornstein, P., Duncan, P., D'Ari, A., Pieniadz, J., Fizgerald, A., Abrams, C. L., *et al.*(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ons middle schoo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5*(4), 415-427.

Botvin, G. J.(2000). Preventing drug abuse in schools: Social and competence enhancement approaches targeting individual-level ethological factors. *Addictive Behaviours, 25*, 887-897.

Bronfenbrenner, U., & Mahoney, M.(1975). The structure and verification of hypotheses. In U. Bronfenbrenner & M. Mahoney (Eds.),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 (pp. 3-39). Hinsdale, IL: Dryden Press.

Chartrand, H. H.(1992). The contribution of arts education to national income: The pattern which sells the things. In N. Yakel (Ed.), *The future: Challenge of change* (pp. 49-97). Reston, VI: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Coyne, J. C., Burchill, S. A. L., & Stiles, W. B.(1991).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on depression. In C. R. Snyder (Ed.),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The health perspective* (Vol. 162, pp. 327-349). New York: Pergamon.

Cumming, E. M., & Davies, P. T.(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5*, 73-112.

Dishion, T.(1990). The family ecology of boys' peer relations in middle school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Dubow, E. F., & U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 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Elder, G., Nguyen, T. V., & Caspi, A.(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 s lives. *Child Development, 56*, 361-375.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Parke, & G.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Fassinger, R. E.(1987).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425-436.

Field, T., Sandberg, D., Garcia, R., Vega-Lahr, N., Goldstein, S., & Guy, L.(1985). Pregnancy problems, postpartum depression, and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2-1156.

Garmezy, N., Masten, A. S., & Tellegen, A.(1984). The study of stress and competence in children: A building block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 97-111.

Harris, J. R.(1995). Where is the child' s environment? A group socialization theory of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02*, 458-489.

Harris, J. R.(1998). *The nurture assumption: Why children turn out the way they do*. New York: Free Press.

Harter, S.(1988).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 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ian and R. Sternberg(Eds.), *Perception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pp. 67-9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Huntsinger, C. S., Jose, P. E., & Larson, S. L.(1998). Do practices to encourage academic competence influence the social adjustment of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747-756.

Jenkins, J. M.(1996) The influen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functional ovarian cysts during IVF cycles. *Human Reproduction., 11*(Suppl.), 132-136.

Jessor, R.(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log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597-605.

Ladd, G. W., & Hart, C. H.(1992). Creating informal play opportunities: Are parents' and preschoolers' initiations related to children' s competence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179-1187.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 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Leyendecker, B., Harwood, R. L., Comparini, L., & Yalcinkaya, A.(2005). SES, ethnicity, parenting. In T. Luster and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2nd ed., pp. 319-342). Mahwah, NJ: Erlbaum

Luster, T., & Okagaki, L.(1993).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227-25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cLoyd, V. C., Jayaratne, T. E., Ceballo, R., & Borquez, J.(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562-589.

Newcomb, A. F., & Bagwell, C. L.(1995). Children' s friendship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06-347.

Olson, D. H., & Barnes, H. L.(1982). Quality of life. In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pp. 55-67).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Park, K., & Hazan, C.(1990). *Correlates of attachment security and self-worth in middle childhood.*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onal Relationships, Oxford, England.

Parke, R., & Ladd, G.(1992).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Radloff, L. 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y Measure,* 1, 385-401.

Swadi, H.(1999). Individual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bstance us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55*, 209-224.

Tiet, Q. Q., Bird, H, R., Hoven, G. W., Wu, P., Moore, R., & Davies, M.(2001). Resilience in the face of maternal psychopathology and adverse life ev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0*(3), 347-365.

Umberson, D.(1989). Relationships with children: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4), 999-1012.

Vandell, D. L.(2000). Parents, peer groups, and other socializing infl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699-710.

Vandell, D. L., & Hembree, S. E.(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 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Wills, T. A., Vaccaro, D., & McNamara, G.(1994). Novelty seeking, risk taking, and related construct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substance use: An application of Cloninger' s theory. *Journal of Substance Abuse, 6*, 1-20.

접 수 일 : 2007년 7월 9일
1차 심사시작일 : 2007년 8월 7일
1차 심사완료일 : 2007년 9월 3일
게 재 확 정 일 : 2008년 4월 5일